

정선균 행정법 강의계획서

GS-1 순환

■ ■ 담 당

정선균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 강의일정
및 시간

9/2(수) ~ 9/19(토), 월~토, 총 16회+4회(각론특강)

<실강반>

- 시험 없는 날 = 저녁 6:40~10:10
- 시험 있는 날 = 저녁 6:00~7:00 <시험>
저녁 7:10~ <강의>

<영상반>

- 시험 없는 날 = 오전 8:40~12:10
- 시험 있는 날 = 오전 8:00~9:00 <시험>
오전 9:10~ <강의>

■ ■ 강의교재

행정법엑기스[저자, 6판, 필통북스]
+ 행정판례백선[신봉기 정선균 공저, 필통북스]

■ ■ 강의특징

1. 책을 꼼꼼히 정리해주는 강의

일단 각 단원에 들어가면 전체적인 조망을 한 다음,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때 밑줄도 정교하게 그어드릴 것이며,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도 설명해드려 교재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 법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강의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평소 읽던 교재를 보면서 시험을 칠 수 없습니다. 결국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법전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간의 암기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평소에 행정법 관련 법령을 꾸준히 공부하여 법전만 봐도 관련된 논점을 끌어낼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법전만 제대로 공부해도 암기할 분량이 50% 이상 줄어듭니다. 저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철저하게 법전 중심으로 강의하겠습니다.

3. 판례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강의

최근 기출문제는 중요한 판례의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출제를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꼼꼼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행정판례백선]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출문제 해설

한 단원에 대한 이론설명이 끝나면 그 단원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설명하여 행정법 이론이 어떻게 사례 해결에 활용되는지를 확인해봅니다.

5. 주 2회 복습범위 시험 실시

주 2회 그동안 배운 범위내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하여 여러분의 답안작성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매주 화, 금에 시행, 개강일 제외).

■ 질문 및 상담

질문 및 상담과 관련된 글은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진도표

※ 행정법각론(행정조직법, 특별행정작용법)은 10월 경 별도의 각론공개특강(4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학원과 협의한 후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강의진도표

※ 행정법각론(행정조직법, 특별행정작용법)은 10월 경 별도의 각론공개특강(4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학원과 협의한 후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일정	강의내용 및 주요쟁점
1회	행정구제법 1 (취소소송 - 대상적격)
2회	행정구제법 2 (취소소송 -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3회	행정구제법 3 (취소소송 - 나머지 소송요건, 소송참가, 소의 변경 등)
4회	행정구제법 4 (취소소송 - 집행정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등)
5회	행정구제법 5 (취소소송 - 판결의 종류 및 효력)
6회	행정구제법 6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객관소송)
7회	행정구제법 7 (행정심판, 국가배상-2조 중심)
8회	행정구제법 8 (국가배상-5조와 6조 중심, 손실보상)
9회	행정법통론 :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법의 일반원칙, 주관적 공권, 특별권력관계, 신고
10회	행정작용법 1 (행정입법)
11회	행정작용법 2(행정행위 - 일반처분, 재량과 판단여지, 다단계적 행정행위, 허가와 특허 및 인가)
12회	행정작용법 3 (행정행위 - 부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무효와 취소)
13회	행정작용법 4 (행정행위 - 하자승계, 하자치유, 직권취소와 철회)
14회	행정작용법 5 (확약,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15회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16회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시험은 복습진도에 맞추어 갑니다.

※ 본 일정은 참고이므로, 실제진행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 주교재 1
(행정법역기스)
에 대한 설명
: 제6판 머리말
발췌

행정법역기스는 수험용본 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대학교에서 강의교재로도 활용되는 표준적 행정법 교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번 제6판에서는 더욱 보편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행정법을 소개하고자 아래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로 출간된 교과서와 실무 교재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법(Allgemeines Verwaltungsrecht) 부분에서는 김중권 교수님(행정법), 길준규 교수님(행정법총론/행정법각론), 박정훈 교수님(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하명호 교수님(행정쟁송법), 임영호 교수님(행정소송의 쟁점),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행정구제법(사법연수원) 등에 소개되어 있는 중요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여 이론과 실무측면에서 최고 Level의 서술을 지향하였습니다. 물론 기존부터 많이 참고해오던 정하중 교수님(행정법개론), 홍정선 교수님(행정법특강), 박군성 교수님(행정법강의)의 교재들도 모두 최신판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행정법(Besonderes Verwaltungsrecht) 부분에서도 환경법(박군성/함태성 공저), 조세소송(소순무), 건설법의 이해(김종보), 자치분쟁법(신봉기) 등을 참고하여 더욱 풍부하고 전문적인 설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 판례를 대폭 보완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최근에 경북대 신봉기 교수님과 함께 판례행정법(필통박스 판)과 행정판례백선(필통박스 판)을 함께 작업하면서 축적해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많은 양의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판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에 따라 판례들을 분류했기 때문에(예를 들어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부정한 판례,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인정한 판례/부정한 판례, 사정판결을 허용한 판례/허용하지 않은 판례 등등) 각종 시험을 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깊은 판례 공부(사실관계의 파악 및 원심 견해의 이해 등)를 하 시려는 분들은 판례행정법과 행정판례백선을 참고하시기를 권합니다.

3. 관련 조문을 더욱 풍부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제5판부터 중요한 논의마다 관련 조문을 소개해드렸는데, 해당 내용을 이해 하는데 매우 도움을 받았다는 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6판에는 더욱 많은 관련 조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행정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 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4. 2014년과 2015년에 출제된 사법시험, 5급공채시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진도에 맞춰 소개하였습니다.

5. After Service

판례색인과 사항색인은 책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별도의 파일로 제공됩니다. 제5판 소지자를 위한 추록도 별도의 파일로 제공됩니다. 위 두 파일은 8월 10일 경에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와 필통박스 홈페이지(<http://www.feeltongbooks.com>)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 주교재 2
(행정판례백선)
에 대한 설명
: 초판 머리말
발췌

『행정판례백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법원 판례 외에 「원심판례」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대개 판례의 학습은 대법원 판례만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대법원 판례만으로 학습하기에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특히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심판결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 책에서는 대법원 판례 자체로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보되었거나, 원심에 소개된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원심판결도 함께 소개하였다. 사실 우리가 선정한 1백 여개의 판례에 대한 원심판결의 확보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음을 밝힌다. 이 책에 수록할 대상 판례의 선정에 있어 저자들은 그동안 행정법의 각 영역별로 리딩케이스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판례를 먼저 선정한 후, 지난 20여년간 비중 있는 판례로 평가되어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고 또 소개했던 사건들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제까지 사법시험·행정고시 및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다른 판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행정판례백선』을 통한 판례 학습을 함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판례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관련 근거법조문을 읽은 후, 잠깐 멈추고,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쟁점이 문제가 될 것인지를 숙고하는 연습을 먼저 해보기를 권한다. 이 책의 학습방법을 다시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실관계 및 근거법령 읽기 → ② 쟁점 추출 및 논거 작성하기 → ③ 「원심판례」의 논리전개·결론과 비교하기 → ④ 「대법원판례」의 판시와 비교하기 → ⑤ 마지막으로, 「독자」의 입장과 「원심」 및 「대법원」의 논리를 비교하기. 이러한 학습 과정을 반복할 때, 행정법 판례 학습의 흥미가 크게 제고될 뿐 아니라, 이미 독자 여러분은 준(準)법조인임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습은 행정법에 대한 흥미 제고는 물론이고, 수험생의 경우에는 행정법을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목표를 삼아도 될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궁저자는 『행정판례백선』을 집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행정 판례의 효과적 학습」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책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 교재의 순서는 수험생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채택된 교과서의 순에 따랐다.
-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도해」하여 그려두었다.
- 사례형 시험의 연습을 위해 원심 및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여 보다 충실하게 「사실관계」를 정리·소개하였다. 이를 사례형 사실관계로 생각하고 쟁점 파악에 나서는 유용할 것이다.
- 사실관계의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당해 사건 당시의 법령」을 찾아 소개하였고, 그것이 현행법령과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현행법령으로 대체하였다.
- 법조인으로서의 논리적 사고력을 고양시키고 원심-대법원의 차이를 감지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판례」를 먼저 소개한 뒤에 「대법원 판례」를 배치하였다.
- 사안의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해 사건 최종 재판결과를 각 사실관계의 끝 부분에 표기하였다(인용, 상고기각 등).
- 시각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판례의 주요 원칙론적 실시 부분을 음영 처리하거나, 박스 또는 밑줄 등으로 판례의 중요 부분을 강조하였다. 특히 행정법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경우로서 단시간에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러한 강조 부분을 중심으로 읽으면 좋을 것이다.